

# 광주시 부시장·감사위원장 檢 재소환

## 고위간부 구속 후 수사 확대해

###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 주목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검찰에 또다시 소환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이날 광주지검에 출두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정 부시장이 5번째, 윤 위원장이 4번째다.

법조계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를 담당한 A 전 국장이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이들의 소환조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수사범위가 확대되거나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A 전 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 전 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정 부시장, 윤 위원장 등과 공모해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 A 전 국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정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더욱 확대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자가 나온 뒤 추가 수사를 벌이는 것을 보면 혐의 적용을 더 확실하게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추가 조사를 벌인 뒤에 관련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 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정 부시장을 4차례, 윤 위원장도 6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뉴스1



**집돼지말고 멧돼지 잡아라**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 회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강압적 정부대책, 존폐위기 한돈농가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의 ASF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예산도 세웠는데”…‘수능생 점심 제공’ 행정 엇박자 무산

### 순천시·교육청 지원 협조 늦어 결국 불발

순천지역의 수능 수험생들에게 올해 처음 점심 급식 지원 계획이 세워졌지만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의 준비소홀로 무산됐다.

5일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순천시 수능시험장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20학년도 대학수능시험 급식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재의 수험장 급식실의 좌석 부족과 민원발생 소지 등 이유로 급식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장을 최종 정리했다.

앞서 지난 4월 순천지역 교장단 간담회에서 순천시에 수능 점심 지원 예산을 요청했고, 다음달인 5월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시청질문을 통해 수능시험 당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순천시는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에 반영했고, 수능 당일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순천시의 급식 제공 계획은 순천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순천교육지원청은 수능 점심지원 관련 예산 지원을 순천시에 요구하지 않았고, 순천시도 단순한 예산지원이란 점에서 교육지원청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엇박자’를 내고 말았다.

이후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수능일 점심 지원문제를 순천시에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시는 지난 9월27일에야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부랴부랴 수능시 험장을 제공하는 학교의 급식실 상황 등 급식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는 학교가 있고, 50분밖에 되지 않는 식사시간의 한계, 조리원들의 근무 등 세부적인 문제가 많음을 파악하고 결국 ‘급식제공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영란 시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몇몇 학교장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내년부터 실시하자면 결정은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며 “순천시와 교육청이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급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양 기관을 비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완도 해상서 3000톤급 화물선·유조선 충돌

4일 오후 7시57분쯤 완도군 소안도 인근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유조선이 충돌했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2672톤급 화물선 T호(벨리즈 국적)가 왼쪽으로 배를 돌리던 중 3000톤급 유조선 B호(중국 국적) 선체 왼쪽 부분과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충돌이 경미해 인명 피해나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양법에 따라 선장을 입건하는 등의 형사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해 두 선박회사 측이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경비정 6척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다행히 기름유출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빨리 대처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환풍기 뜯고 상점 침입 담배 훔친 중학생들

환풍구를 통해 상점에 침입해 담배 수십갑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군(15) 등 중학교 3학년생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상점에서 담배 65갑(29만2500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밤거리를 배회하던 중 담배 피는 상점을 발견한 A군 등은 환풍구를 통해 상점에 침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점 인근에서 발견한 사다리를 범행에 이용했다.

약 1m50cm 높이에 설치된 환풍기의 날개 부분을 뜯어낸 뒤 왜소한 체격의 A군이 환풍구를 통해 상점에 들어가 담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점과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군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초등생들 폭행·성추행 사회복무요원 입건

공원 관리 업무를 하던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일 낮 12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공원에서 남성이 어린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회복무요원 A씨(24)는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10)의 팔을 잡아 끌고 데려가 축구 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하고 아래를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사실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범행 제보도 받았다.

A씨가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자 한 여자 아이가 경찰에 다가와 “저 아저씨가 내 몸도 만지고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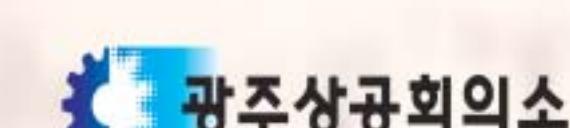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해당 공원에서 C양(9)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제지했지만 A씨는 C양이 ‘자신의 조카’라고 변명했다. 행인이 C양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당시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 직원과 동행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당시 구청 직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과 C양, 보호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